

“KIA 야구 보는 재미로 살아요”

타이거즈 KBO리그 1위 질주
투타 밸런스에 '신구조화'
김도영, 월 10홈런-10도루 기록
챔필 14경기 22만4988명 입장
가성비 좋은 시민 놀이터로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시즌 6차전이 열린 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많은 관중이 입장해 야구를 즐기고 있다.

‘고통가 시대’ 챔피언스필드가 시민들의 가성비 좋은 놀이터가 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올 시즌 ‘우승 후보’로 주목받았던 KIA 타이거즈는 기대대로 1위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제임스 내일이라는 ‘특급 외국인 투수’를 앞세워 마운드를 강화한 KIA는 총출회전 야수진으로 경기를 풀어가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투타의 밸런스는 물론 ‘신구조화’도 좋다. 베테랑 양현종이 지난 1일 KT와의 홈경기에서 9회를 나홀로 책임지면서 올 시즌 KBO리그 1호 원투승 주인공이 됐고, 마무리 정해영은 4월 24일 키움전에서 20세 8개월 1일이라는 KBO 최연소 100세 이브 기록을 24년 만에 갈아치웠다. 타석에서도 나이를 가리지 않는 활약을 이어지고 있다. ‘만행’ 최형우가 연일 홈런포를 날리는 등 KBO 레전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햄스트링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을 대신해 2일에는 글러브를 끼고 외야로 나가 수비까지 소화하면서 출전수 범하고 있다.

야수 ‘막내’ 김도영은 KBO 새 역사의 첫 장을 열었다. 김도영은 4월 25일 키움전에서 중앙 담장 넘는 홈런을 날리면서 KBO리그 역사상 첫 ‘월간 10홈런-10도루’ 기록을 작성했다. 고민 많던 안방에도 한준수가 새바람을 일으키면서 KIA는 우승 후보로 손색없는 전력을 갖췄다. 무엇보다 KIA는 새로 지휘봉을 든 이범호 감독을 중심으로 ‘원팀’이라는 특급 무기를 앞세워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중석도 덩달아 뜨겁다. 1일 경기까지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14경기에 22만4988명이 입장했다. ‘V11’을 이루며 광주에 야구 바람을 불렀던 2017년 관중석 분위기와 비교하면, 올 시즌이 더 뜨겁다. 2017년 챔피언스필드에 102만4830명이 찾아 인구 145만 도시에서 첫 ‘100만 관중’ 기록이 작성됐다. 당시 평균 관중은 1만5865명, 올 시즌 평균 관중은 1만6070명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2연전이 폐지되고 격년제로 ‘홈 73경기-원정 71경기’가 편성되면서, 올 시즌 KIA는 2017년보다 안방에서 1경기를 더 치른다.

최대 매진 기록도 새로 작성될 전망이다. 앞선 KIA의 최대 매진 기록은 2017년 10회. 개막전부터 2019년 7월 13일 이후 5년 만의 매진을 장식한 KIA는 올 시즌 벌써 5번의 매진을 기록했다.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도 매진 행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KIA는 3일부터 홈에서 한화와의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올 시즌 흥행의 두 탑이 만나는 데다, 5일 어린이날까지 겹치면서 표구하기 전 쟁이 벌어지고 있다. ‘호랑이 분방’을 깨운 KIA의 질주에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을 기다리면서 시름을 잊고 있다.

현장의 열기를 느끼려는 이들의 발걸음도 이어지면서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챔피언스필드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KIA는 올 시즌에도 팬들을 위해 입장권 가격을 동결했다. 챔피언스필드의 가장 저렴한 좌석(K3석)의 가격은 성인 기준 8000원(주말 3연전 9000원)에 불과하다. 3시간 넘는 시간 ‘치맥’과 신나는 응원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기에 이만한 공간이 없다. 입장권 가격은 그대로, 경기력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챔피언스필드가 광주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폭언전화 끊는다...공무원 ‘신상 보호’ 이름 비공개

악성민원 방지 대책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탈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자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연합뉴스

비 내리는 어린이날 5일 오후 강풍·호우 3·4일 최고 27도 초여름 날씨

어린이날인 5일부터 대체휴일인 6일까지 광주·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2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어린이날인 5일 이후 강수량을 공개할 수 없다”며 공식 강수량은 아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호우 특보 수준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고 물결도 높을 것으로 예상돼, 해상교통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는 5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에 집중되고, 7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오기 전인 4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최고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3일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되고, 4일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분포해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다. 5일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아침 15~17도, 낮 19~21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한 시설물 안전과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등에 유의해야겠다”며 “연휴기간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등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5·18 진상조사위 성과와 문제점 ▶6면
- 복스 - '명작의 탄생' '황금, 불멸의...' ▶14·15면
- 어린이날 연휴 TV 프로그램 ▶21면

사랑과 감사의 70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어린이날 대체 휴일... 6일 신문 쉽니다

바이탈뷰티

마시는 프리미엄 콜라겐 슈퍼콜라겐 골드

구매문의: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를 통해 구매하세요 080-023-5454